

5/21/17

설교 제목: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5:1-10

- (히 5: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절관주** 히 5:3
- (히 5:2)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 (히 5:3)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절관주** 레 4:3
- (히 5:4)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 (히 5: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절관주** 시 2:7
- (히 5: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 (히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 (히 5: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 (히 5: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 (히 5: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본문인 히브리서 5 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스리며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일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년간 지은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약 시대 지성소에는 오로지 모세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임명하셨고 직계 후손으로 대를 이어 세습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으며 그의 직계 후손으로 세습되었습니다.

기자는 먼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합당한 자격을 말합니다.

(히 5: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 5:2)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히 5:3)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째,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어야만 무지하고 미혹에 빠진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으며 또한 안타깝게 여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히 5:4)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직위인 대제사장직은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불러 주셔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히 5: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 5: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가르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진 인물입니다.

(창 14: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창 14: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창 14: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창 14: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창 14: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창 14: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창 14: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 14: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창 14: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 (창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 (창 14: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창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사건은 BC 1500 년 이전, 도시들로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그 동맹군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사로잡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롯과 롯의 재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이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 온 아브라함을 맞으며 축복했고 그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전쟁 노획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당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인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바로 그의 몸과 그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몸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화목제물이십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속죄 제물이십니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고 하신 말씀 중 '반차'란 '어떤 직무를 행하는 차례, 순번, 서열'을 뜻합니다.

'제사장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이 제정된 후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임명하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들은 소, 양, 염소 등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제사장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소, 양, 염소 등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떡과 포도주로 이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신약 시대 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신약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처럼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눅 22: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눅 22: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눅 22: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써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는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의미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멜기세덱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 누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대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하는데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 속하셨으며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멜기세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자파도 아니요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이나 레위 지파가 존재하기 훨씬 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론 이전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니어도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 이후에 제사장은 동시에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이자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생기기 전 이미 멜기세덱을 등장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기자는 구약 시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신약 시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히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으로는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야만이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왕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값없이 거저 이러한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히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겻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통곡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므로 채찍에 맞거나 십자가에 못박혀도 아프지도 않아 그 일을 쉽게 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와 성정이 같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일은 피하고 싶으셨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했던 기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대했던 것은 그 후에 이어진 기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기도를 들으시게 한 것입니다.

(히 5: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 5: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모든 믿는 이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